

정기국회 버르는 여성관련법안

성폭력특별법 개정 확실시

신한국당,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번 회기엔 어렵다'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올해 여성계 최대 숙원사업인 (가칭)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등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성 관련 법안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제도적 보완작업이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법은 성폭력특별법이다. 물론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 처리과정에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전 잇따라 발생, 전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성폭력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한 상태라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여성계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신한국당은 오양순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 실무팀을 꾸려 손질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대상에는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를 확대, 성희롱 금지와 처벌 등이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위(위원장 신낙균)에서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개정사항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강화한 부분이다. 우선 눈에 띄는 조항은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 침해의 죄'로 규정해 성폭



사진은 '증기탕(터키탕) 규제완화에 항의하는 모습.

력범죄 유형 및 범죄구성 요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준강제추행죄 등 강간

리 등을 신설해 피해자보호는 물론 직장여성 등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임시회 당시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 외 17명이 발의했으나 정기국회로 미뤄

진 남녀고용평등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대

친고죄 폐지, 친족범위 확대 등에 이견 없어 여성의원, 고평법 개정 열의

에 준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의 관계까지로 확대, 의부와 양부까지 포함함으로써 친고죄(현 18조, 19조)의 허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대리인제, 도, 피해자 등의 재정신청권

했다.

여성특위는 이외에 어린이 성폭력,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해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상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고평법의 경우 간접차별 금지와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심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성계가 지난 상반기 집중

적인 역량을 쏟아부은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은 여론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희망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를 중심으로 한 여성계는 지난 22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를 발족시켰고 국민회의까지 시안을 마련, 8월 최종검토작업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신한국당의 경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유는 '출속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신한국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확정해 여성단체 대표, 여성문제 전문가, 법률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려 월 1회 정

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9월까지 자체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풍속에 관한 법률'과 함께 최근 '증기탕'으로 명칭이 바뀐 터키탕과동에서 불거진 공중위생법에 대해서도 음란퇴폐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요구가 국민회의 신낙균 의원의 소개로 청원돼 있는 상태다.

또 2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도 지난 8월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결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생활안정지원특별법'을 강화해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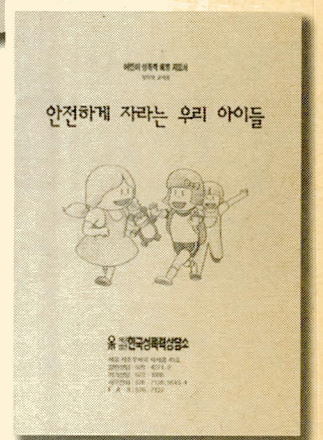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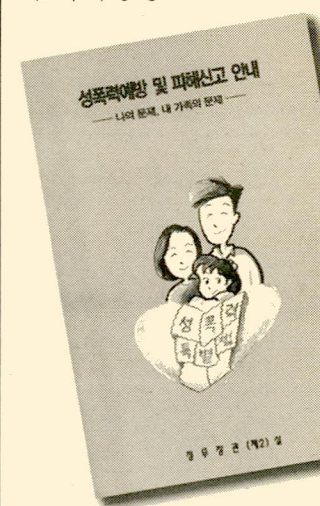
정무장관(제2)실·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예방 소책자 발간

성폭력예방 지침서가 정무장관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됐다. 정무장관실에서 제작한 <성폭력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에는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과정과 성폭력 실상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절차, 범죄 예방방

이 성폭력 예방 지침서이다. 여기에는 어린이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어린이 성폭행이 일어나는 지 피해 장소와 유인방법, 후유증,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등이 나와 있다.

책자 구입은 원할 경우 정무장관(제2)실 (725-0505)과 한국성폭력상담소(576-7128)로 하면 된다.

성폭력 상담기관은 한국여성의 전화(263-6464), 가족과 성 상담소(643-8424), 아동학대 예방협회(776-8600), 생명의 전화(763-9195), 서울 시립 아동상담소(814-0020), 자비의 전화(737-7374), 나눔의 집(605-4580) 등이다.



법이 실려 있다. 특히 성범죄 신고와 성폭력을 당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및 피해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제목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책자는 부모와 교사용 어린

언론, 성범죄 꾸짖으며 성충동 조장한다

외대 김우룡 교수, 성차별적 취재보도 경향 비판

최근 잇따른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가 성차별적이며 지나치게 포르노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한국외대 국제커뮤니케이션센터(소장 김진홍)가 주최한 제13회 언론 취재보도 관행의 개선을 위한 워크숍 '성범죄 기사 취재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에서 한국의대 김우룡(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은 성충동을 조장하고 꾸짖으면서 도덕적 결벽주의자와 성적 쾌락주의자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기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심지어 "성범죄 사건의 집중적인 보도는 독자를 늘리는 수단처럼 보인다"는 비난까지 가했다.

김교수가 성범죄 관련 기사

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언론이 보이는 그릇된 행태는 대략 여덟가지.

▲ '소나기식 냄비보도'와 '대서특필'로 대표되는 성관련 기사 선호경향 ▲상상력과 추

고 무책임한 처방과 대책 등이 그것으로 김교수는 이런 보도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성폭행범을 뒤쫓아 피살된 최모씨가 7단으로 보도된 반면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구

성관련 기사 선호경향 뚜렷 음란물 조사위·수용자 운동 제언

측으로 사건을 운색하는 객관성의 결여 ▲개탄하고 분개해 미리 여론을 재단하는 태도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자의적 해석 ▲구체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포르노화 ▲타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성 상품화 조장성 ▲피상적이

하려다 차에 치여 숨진 임모씨.는 1단으로 취급된 경우, 성폭행 피해소녀를 성적으로 문란한 위기의 10대로 몰아간 경우, 여과없이 원숭이 교미장면을 방송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이어 김교수는 "선정주의는 지나친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과장, 과대, 허위를 넣게 마련이며, 이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저널리즘의 본래 사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라 꼬집고 선정보도 금지,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전문적 교육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 커리큘럼을 개설하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매체 수용자에 따른 차별화, 전문화, TV의 경우 방송 시간 등급제 도입, '음란문화특별 조사위원회' 구성 등과 함께 수용자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쟁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언론사 자체적

으로 마련한 그나마의 언론윤리강령마저 지나치게 모호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김교수의 이

런 파격적인 제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는다.

인터뷰

황교장 성추행 사건 공대위 이수호 위원장

“공대위, 학교 성폭력 막는 상설적인 기구로 ...”

31일 대국민 선전전 계획... 학교 성폭력 완전 추방을 목표

학교내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될 수 있었던 데는 신양중학교 황교장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호)의 활약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신양중학교 황교장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도 벌써 3개월째. 황교장 성추행 사건의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언론의 보도 직후 인권, 시민, 여성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이번 사건을 단순히 피해 학생의 문제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학교 성폭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학교 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 열기를 끌어 모아서 공동대책위를 결성한 주인공은 이수호씨이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장이자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큰 딸 꽃망이가 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어색해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웬지 사안이 성폭력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옳은 일이라고 격려까지 해 주더군요.”

이번 일을 맡으며 학생들의 성폭력문제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이 위원장. 아마도 우리나라 남성 중에서 현재 학교 성폭력문제를 가장 열심히 풀어 보려는 사람인 지도 모른다.

공대위는 대통령령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전달했으며 31일 대국민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내 성폭력 완전 추방을 실현하겠다는 각오이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이번 황교장 사건이 처리되는 대로 공대위를 상설적인 기구로 남길 계획을 내심 하고 있다.

고교담임교사 추천으로 교편생활 시작

큰 딸 고3 꽃망, 외아들 고1 한맘, 막내딸 중1 빛의 아버지 이위원장은 89년 해직된 교사이다. 89년 해직된 1천5백명의 전교조 교사들 중 93년 복직된 이는 1천 3백명. 나머지 2백여명의 교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다른 직업을 갖거나 유학을 떠나는 한 부류와 여전히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등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의 실현을 요구하며 학교 바깥 조직에 남아 학교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부류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후자에 속한다.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 복이 많다.

74년 영남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스물 일곱의 나이에 경북 울진군 제동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이 발령은 순전히 고1때 담임 교사 덕분이었다. 제동중학교에 근무하시던 담임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준 것이다. 이 위원장은 거기서 3년간 교편생활을 했다.

이 학교는 농촌 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학생이 공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러



이수호 위원장.

“평생 흠뻑새를 맡으며 살았으면 꿈꾸기도...” 〈일어서는 교실〉 〈달리는 자전거...〉등 4권 저서

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던 이 위원장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도시로 나가고 싶었다. 그때 서울 신일중학교를 추천해 준 이는 다름 아닌 고3 담임선생님이다.

그때가 77년, 그는 89년 해

직될 때까지 12년을 신일에서 보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이 어려워 학교 온실에서 꽃을 가꾸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기특했다 봅니다. 그리고 반장도 하면서 활발한 성격이니가 오래 기억해주시는 것 같았구

요. 지금도 늘 그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씩스레워하는 이 위원장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흠뻑새가 난다. 사실 그가 고등학교때 꾸었던 꿈도 평생 흠뻑새를 맡으며 사는 것이기도 했다.

“집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선생님들의 권유로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농과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원예학을 전공해 평생 꽃과 채소를 가꾸며 살았으면 했지요. 그러다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 국문과로 오게 됐습니다. 국문과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 선생님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 끝에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세속적인 계산이 없었던 사람. 남들 같이 대단한 직업을 꿈꾼 적도 없었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못해 자책했던 적도 없었다.

1년 수배, 2년 2개월 투옥

89년 해직 직후 불법 단체인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90년 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시절, 5.9 민자당 창당 규탄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91년 강경대 열사 추모 집회후 명동 성당에서 17일째 단식하던 중에 경찰에 연행돼 20개월 투옥 생활을 했다. 이 위원장은 93년 3월 김영삼 정부 취임때 특별 석방됐다. 90

년대 초 한국사회의 격변기 5년 사이에 그는 1년 이상을 도망다녔고 2년 2개월을 갇혀 살았던 것이다.

간혀 살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아이들 생각이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들을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이 참 많다. “아이들이 예민한 시기에 제가 간혀 있었는데도 별 탈없이 밝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또 그럴 수 있기에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구요. 오히려 제가 간혀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밝게 아이들을 키워준 아내에게도 고맙구요.”

그는 70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 74년 결혼했다.

숨돌릴 틈 없이 살아온 것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인색하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그가 펴낸 책도 여러권이다.

89년 3월 교육현장에서의 학교문제를 에세이로 펴낸 〈일어서는 교실(푸른나무)〉, 90년 아이들과 함께 읽기 위해 쓴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온누리)〉, 91년 자신의 유년시절 이야기와 자식을 키우며 들었던 생각을 동화로 묶은 〈가치 가족(푸른나무)〉, 95년 감옥에서 쓴 에세이집 〈사랑의 교육, 희망의 교육(내일을 여는 책)〉에서 그의 생생한 일기를 읽을 수 있다.

(최진숙 기자)

388호 3면 김윤덕 신임 정무장관(제2) 인터뷰 기사중 장관의 나이(50)은 (60)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당사자와 독자 여러분께 양해 바랍니다.

잔탁의 약효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합니다.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의 대명사 -

■ 탁월한 치료효과

잔탁 4주 요법으로 95%이상의 높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료효과의 유지

난치성 및 중증 또는 재발성궤양 환자를 위한 유지요법의 확립은 잔탁만의 자랑입니다.

■ 정상적인 위산의 생리기능

야간에 과도한 위산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며, 주간 위산의 기능을 유지 시키므로써 과도한 위산 분비억제로 인한 세균증식 및 발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잔탁®

문의전화: (대) 709-4100

GlaxoWellcome
한국그락소웰컴